

인천시 「일자리 기업분과위원회」 제6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19.11.13.(수) 11:00~12:30 /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
- (참석위원) 위원 13명 중 8명 참석
 - * 배석(2) : (사)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사무처장, 일자리경제과장
- (주요내용)
 - 「신중년-제조업 일자리 매칭 사업」 세부 논의
 - 제1차~제5차 기업분과위원회 논의 의제 정리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

□ 논의 내용

① 신중년-제조업 일자리 매칭 사업 세부 논의

< 신중년-제조업 일자리 매칭 관련 수요조사 결과 >

- 신중년에게 제조업의 일시적·간헐적 일자리를 매칭시켜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, 기업에게 단기직 인력을 제공함
 - 기업 수요조사 결과 일시적·간헐적 인력 수요가 10명 이내가 필요하다 (94.7%)는 응답 결과가 많았음
 - 구직자 수요조사 결과는 제조업체 파견근로사업을 통해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84.3%로 조사됨
 - '50~54세', 연령 무관(94.7%)한 인력과 성별이 무관(28%)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무 강도가 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할 수 있음
- 현장 경험이 없는 신중년들은 현장에 나가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, 기업도 현장 경험이 없는 신중년을 고용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전환 교육이 필요함. 안전교육, 건강검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은 신중년과 단기 계약직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이 필요함(사무처장)

- 현재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. 근로자들이 교육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(서○○ 위원)
- 직업 알선뿐만이 아니라 직업 훈련 등 근로자 관리를 겸하는 사업은 파견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함(이○○ 위원)
- 지금 하고 있는 워크넷 등 많은 일자리매칭 사업들이 구직자가 올린 프로필을 검증하지 않고 매칭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뢰하지 않음.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(박○○ 위원)
-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빠져나갈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함(이○○ 위원)

② 제1차~제5차 기업분과위원회 논의 의제 정리(간사)

- (그 간 논의 의제 정리 및 피드백) 제1차~제5차에 기업분과위원회 회의 의제를 정리하고 결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함

< 그 간 기업분과위원회 논의 주제 >

- (1차회의) : 지방산단 8개 통합관리, 대기업과 지역업체 상생방안 등
* 추가 논의 안건 :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, 공항지역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
- (2차회의) : 멘토-멘티 비즈니스 모델화, 기업환경 개선 지원,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
- (3차회의) : 기업-기업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(제조혁신 플랫폼), 인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
- (4차회의) : 기업지원협력네트워크 구축
* 추가 논의 안건 : 기관장 기업 현장 체험, 혁신기업 경영 지원
- (5차회의) : 신중년·제조업 일자리 매칭, 업무용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 등

□ 논의 결과

- ‘신중년-제조업 일자리 매칭 사업’ 계획을 보완하여 기업분과위원회 위원들과 공유 후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 안건 상정 여부 결정